

## 윤구병 <함과 됨>

제2강 - 있음과 없음  
(1교시)

### ◆ 있음과 없음의 구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있다/ 없다가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가려주는 근거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방금 드렸죠? 철학은 원인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왜를 끝까지 물고 나갔을 때 끝까지 그 왜를 밝혀서 맨 위에 있는 놈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같고 다르고, 이고 아닌 것을 뒤에서 끈으로 조정하는 두 놈인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괴물이길래 이렇게 삼라만상을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음과 없음이라는 제 반편 정도의 존재론 강의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먼저 지루하게 반복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강력한 수면제로 이용하실 분들은 모를까~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십 부나 백 부만 찍어서 돌려보라고 했는데 제가 낸 책은 어느 정도 팔리니까 이것도 돈이 될까 해서 냈는데 그것이 가장 안 팔리는 워스트셀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까 1번이 참을 근거 짓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1. 있는 것이 있다.
2. 있는 것이 없다.
3. 없는 것이 있다.
4. 없는 것이 없다

‘있는 것은 있다’ 그러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는 것을 참이라 그랬죠.

2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학생曰: 거짓이요~)

3번도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묶은 것이 1과 4번은 참, 2와 3은 거짓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봅시다.

있는 것이 있다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죠? 그냥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이 있지~ 그다음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뜻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없는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있다/ 없다로 나누어지는 말은 논리학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자말과 풀이말이 이다/ 아니다로 연결되는 말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존재의 영역에 있는 말들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없고 다만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뜻이 있다/ 없다 하는 것만 가지고 우선 가려보는데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 대답 없음) 여러분들 못 아듣겠어요? 아듣겠죠? 그러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다, 거짓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혹시 빠진 것이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보십시오. 맞습니까? (학생들曰: 네-)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曰: 있어요. 다 있다~) 그렇죠! 똑똑한 학생들이네~ 다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 버리면 부정이 되는데, 왜 느닷없이 하나가 튀어 나오느냐. 이상하죠?

우리 사유구조가, 우리 생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데 있는 것이 없다가 느닷없이 하나도 없다는 말로 바뀔 수 있느냐, 왜?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거짓의 영역에서 속하는 건데, 없는 것이 있다 인데 왜 없는 것이 빠진 것이 돼버리느냐.~ 우리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갑자기 도깨비처럼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없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여럿을, 모두를 가르치는 다 있다는 말로 바뀌게 되느냐,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학생曰: 전체를 머릿속에 두고서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 정체성에 없는 것들이 짝찬 상태로 있다 생각하면 그 중 빠진 게 있다, 있는 것이 없다, 원래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저 야바위 놀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신해주네요~ (일동 웃음)

그런데 전체로 하려면 최소한의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럿의 최소 단위가 있어야 전체라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전체라고는 안하죠~ 그러면 전체라고 그럴 때 전체를 가리키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둘은 무엇입니까? 둘 이상이 있어야 좌우간 다(多)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전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둘이 무엇입니까? (대답 없음)

여기서 나온 바로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체의 경우를 구성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학생들曰: 있어야 해요~) 있어야죠~ 지금 당장 거짓말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거짓말의 수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의 구조, 그것을 반영하는 우리 사유의 구조. 이러면 좀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없는 것을 실체화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혹은 그런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반은 넘어갔습니다.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하다. 없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시간이 저로서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15년 이상 전에 풀어먹었던 것을 그냥 풀어놓고 저는 그냥 적당히 강의시간 때울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이런 강의를 괜찮는데.. 아마 바쁘신 여러분들한테는 시간낭비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학생 曰: 안 바쁘데..) 하하하 안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진전시켜서 봅시다. 있는 것이 하나로 있다고 칩시다. 있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도 없다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있는 것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선생님 무슨 그런 헛소리하세요? 이게 어디 하나로 있습니까? 둘로 있죠. 굴과 무화과 둘로 있는데 하나로 있다니요? 멍청한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가 하나로 있으면 입이나 병긔할 수 있고 이것저것 가려나 볼 수 있겠어요? 똥, 오줌도 못 가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헛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 여럿의 최소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둘! 여럿의 최소단위는 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둘로 나눠보자. 하나는 있는 것 기억(ㄱ)이고, 하나는 있는 것 니은(ㄴ)이다. 그러면 이 있는 것 기억(ㄱ)과 있는 것 니은(ㄴ)을 나누는 경계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야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누선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학생들曰: 있는 거요~) 예? 있으면 하나로 합쳐져 버리죠~ 있는 것, 있는 것인데 뭣 때문에 둘로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대안은 유일하게 없어야죠. 없으려면 그 자체 규정상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있는 것은 하나로 있죠. (학생들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다시~ 만일에 여럿의 최소단위는 둘인데 있는 것이 둘로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있는 것 기억(ㄱ)과 있는 것 니은(ㄴ)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려면 나누어주는 경계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있는 것 기억(ㄱ)과 있는 것 니은(ㄴ)을 나누어주는 것이 있어야 그걸 둘이라 그러지 딱이 되서 하나로 붙어 있다. 그러면 둘이라고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나누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학생曰: 있다)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것이 돼가지고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경계선이 없죠? 그럼 또 달라붙죠? 그래서 있는 것은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통째로 부정이 돼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것은 하나로 있기 때문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머리 좋죠. 그걸 압니다. 우리의 옛날부터 있는 것은 하나로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부정이 되면 통째로 부정이 되서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된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다 할 때 이걸 빠진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 서양의 존재론 역사들을 계속해서 끌어오면서 말썽에 말썽을 거듭해서 불려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논리적인 사고에서나 속은 그렇지 않고 초월적인 사유에서나 똑같이 어려운 것인데, 말하자면은 기독교에서는 지독히 어렵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creatio ex nihilo (무로부터의 창조), 무에서 창조하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열역학 제일의 법칙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 사람 아무 것도 아니다. 헛것인 것이 하나님이 주물럭 주물럭거리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 신만이 유일하게 믿는 것이고, 기독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로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있고 자기가 나머지는 전부 헛되고 헛되도다.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 낸 거니까 헛되다고 하는 건데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서 보면 지금 실증과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완강하게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없는 건 없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 것이 큰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것이 있다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보자. 그래서 계속 맴도는 뒀안길을 찾는 게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거

쳐서 현대 실증과학에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는 것이 있다. 거짓의 근거가 되는 말이라고 했지만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고가 요청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려 구별을 하려면 없는 것을 있다고 놓고 봐야 하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여러 선이 확보되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면 둘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세상은 구조 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같고 다르고 이고 아니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없는 것을 빼놓고는 아니다라는 부정사 쓸 수 없죠? 그리고 다르다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이 있다고 보면 둘이 확보가 되죠? 그럼 여기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曰: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으면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것, 해가지고 없는 것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거꾸로 경계선이 없는 것이라고 치면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해서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요? 이 경계선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이 온통 다 모두를 지배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온통 다 이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죠? 이 경계선은 어떻게 봐야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해야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있는 것과도 구별되고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없는 것과도 구별되면서 경계선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이 경계선을 그리스 사람들은 “Peras”, 우리말로 한계, 끝, 갓, 걸,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끝하고 걸하고 갓하고 걸하고,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나누어주는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걸’이라 그러고 ‘갓’이라 그러고 ‘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선을 Peras라고 하는데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뭐냐고 그러냐면 apeir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계선이 아닌 것 혹은 경계선으로서 없는 것, 경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인피니트', 영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한한 것 무한히 연장해 놓은 것 또 하나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어 apeir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없는 것 하나, 있는 것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이 세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어떤 원시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 둘, 많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서 밤새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는 책장사를 좀 해야죠~ 있음과 없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없는 것은 하나로 있겠습니까, 여럿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로?

(학생曰: 아니요, 여럿으로.) 이유는? (학생曰: 아까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선생曰: 다 있다고 그랬죠. 없는 것이 있다는 빠진 것이 있다고 그랬고.) (학생曰: 그 빠진 디펙트가 꼭 하나일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빠진 것이 꼭 요렇게 빠져야 하고 이만큼 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 빠진 것에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는 것은 무한히 많다.

있는 것은 하나이지만 없는 것은 무한이 많다. 이래 없고, 저래 없고 없는 사람 죽을 맛이  
지만은 어쨌든 없는 것은 엄청 많다.

## 제2강 - 있음과 없음

(2교시)

### ◆ 있음과 없음의 연속성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파르메니데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존재론 및 인식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존재의 철학자라 불림)나 고르기아스 같은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르메니데스는 아까 제가 했었던 이야기의 뼈대를 세운 분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있다, 없는 것은 없다. 근데 있는 것은 하나로 있고, 굳이 형상화하자면 하나로 있고, 뭉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毬)형태, 스파이로스의 그런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해 보자.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은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여럿이죠. 공간 속에 공간이 펼쳐지면 거기에 이것저것 놀 수 있는 자리가 생기니까 공간은 자리죠. 이제 공간이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하지 않으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은 저기 없고 저기 있는 것은 여기 없다, 근데 없는 것은 없다, 따라서 없는 것은 없다. 또한 공간은 없다. 아주 불친절하지만은 훨씬 더 정교한 논리를 그 제자인 제논이 개발을 해서 스승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그것 전부 있음과 없음에 있습니다. (일동웃음 하하하~)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는데,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고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오,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도 없다. 그것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그 제자 제논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논은 얼마나 우직한 사람이냐 하면 파르메니데스도 그렇고 제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하시는 유명한 분도 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개발한 피타고라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유클리드까지 이탈리아반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이태리학파들입니다. 파르메니데스, 티마이오스 우주론을 세운 제논 이 사람들이 전부 명석한 이태리학파 사람들이다. 전체의 지구중심 그다음에 운동도 아리스토텔레스, 질적인 운동을 뒤집어버린 사람인 갈릴레오까지 이태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태리 마니아가 또 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니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워낙 명석한 사람입니다. 파르메니데스와 고르기아스도 이태리 사람들인데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파르메니데스는 있다/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참말만 한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참말만~ 참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있다.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고르기아스가 정면으로 치받습니다. ‘없다. 있는 것이 없다’ 반대죠~ 있다, 그랬는데 고르기아스는 없다, 무엇인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무엇인가.. 그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 치더라도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길이 없다. 입 밖에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없다 그러고 근데

있는 것이 하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고 일동웃음.) 조금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생략을 못할 지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 아까 했었죠? 이것이 참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학생들曰: 네~) 그리고 이것이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에도 들어맞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이다라고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가만 있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라... 그럼 있는 것이 둘로 있네요~ 우선 있는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어의 자리에 있고 하나는 서술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임자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는 그 풀이말 쪽에 있고 이게 이다로 연결이 되네요. 둘 이상이 되어야 이다/아니다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요? 아까 있는 것은 둘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저마다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거짓말이다. 참말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네요~ 이것은 둘이 있으면 둘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곧 연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간이 곧 거기에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럼 아까 있는 것과 없는 것 둘을 봤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경계선이 돼가지고 이 세 개가 짝 나오니까 다 이어져버리죠. 이어가지고 연장선이 생겼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과 교사 분 계시죠?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라 그러고 피타고라스는 하나를 뭘로 봤습니까? 점. 하나. 하면 한 개가 하나인 것이죠. 한 개가 하나인 것은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학생曰: 보여요) 연장성이 없는 것도 보니까? (학생曰: 아..아뇨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둘은요? 점이 둘이 모이면 이건 라인이라고 하는데 선은 한 개가 둘 있죠. 양쪽에... 그렇죠? 그런데 두 한 개는 안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보이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연장성을 가진 것만이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셋 하면 무엇이 되죠? (학생曰: 면) 그렇죠. 면~ 한 개가 셋인 것은 면. 삼각형. 삼각형이 최소의 한 개로 이루어진 면이죠. 그러면 이제는 네 개. 네 개는 뭐죠? 입체! 이렇게 한 개가 넷이 있는 것을 입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을 다 살펴봐라, 그러면 저 한 개가 하나가 있거나 둘로 있거나 세 개로 있거나 네 개로 있거나 점, 선, 면, 입체로 모두 이루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을 전부 보태면 몇 입니까 점이? 열개죠~  $1+2+3+4$ 는 열이 되는데 이것은 신성한 숫자다, 테트라티스(tetraktys)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이 모든 수로 이 세상의 모든 다(多)와 운동을 규정하려고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잊어버렸지만은 결혼이란 건 이 수로 몇이냐? 이를테면 24다. 뭐~ 이걸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행동이란 건 뭐냐? 36이다 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전부 수로 규정하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야합니다. 수와 비례관계로 삼라만상을 파하려고 했다는 거~ 뭐냐면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차단하려고 그 나름으로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고 내용을 들여다보자~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도 병긋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참과 거짓이 구별되려면 꼭 주어와 술어의 형태로 나와야 하는데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려면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이 여

러 조각으로 깨어져 버린다. 혹은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을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근데 없는 것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와 운동을 설명할 길이 없고, 이것과 저것을 가려볼 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거짓말의 오류, 실수, 사기... 이런 모든 것의 존재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절반쯤 거짓말을 깔고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온전한 참말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참말이라는 것은 침묵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실제로는 면벽수련하는 수자들이 개구족착, 입만 병긋하면 틀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짓말 단체라고 한 이유를 이해하겠죠? 이게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왜 두 개 있느냐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 이겁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설득술이라고~ 이제부터 저도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국어: 뭐하지? 독일어: Was tun? 불어: Que faire? 영어: What shall I do?’

시제는 현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입니까? (대답 없음) 현재라면 여러분께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하게 제 강의 듣고 있잖아요~ 뭐하지? 하고 질문 던질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뭐지? 이 이야기죠.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할 일은 많은 거 같은데 하는 일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뭐 할 일이 없을까. 되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일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서 골라낸 것이 시골 가서 농사짓는 일인데~ 아직도 젊은 것들이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라는 단체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거기 진보적인 사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소장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음모를 꾸리는 집단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저를 그 집단의 우두머리로 앉혀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한 육년은 떼거지로 우두머리가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목을 다 잘라내고 저만 이제 한 15년 이상 우두머리로 지금 있는 셈인데 내년부터 ‘나 타고 나기를 참 자유로운 잡놈이니까 잡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내라’ 해가지고 연말까지 모가지를 쳐내지를 않으면 니네들 모가지를 내가 다 자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그렇게 갈라보려고 그러고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하고 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